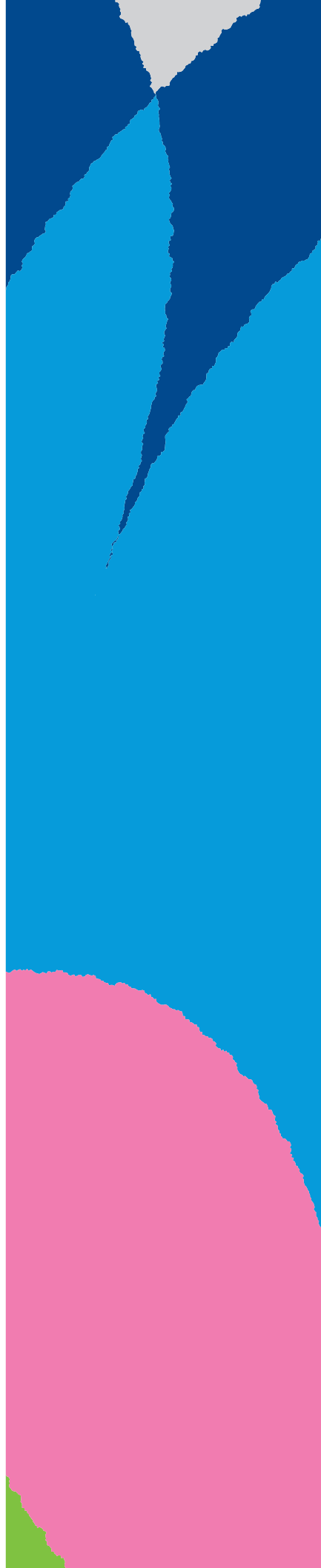








내가 사는 너의 세계

Your World I Live In

목차

008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말, 예술의전당 사장 인사말
010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소개
012	전시 소개
024	작가 인터뷰 및 작품 소개
094 [부록]	전시장 도면 + 오디오 가이드
104	작가 이력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말
그 어느 때보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우리를 찾아 왔습니다. 예술을 즐기기 가장 좋은 계절이기도 하지요. 2023 장애예술기획전 《내가 사는 너의 세계(Your World I Live In)》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장애’ 예술기획전이라는 문구를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장애라는 말을 넣어야 할까?” 하지만 전시 제목인 《내가 사는 너의 세계》를 곱씹어 보고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벌어져 있는 ‘너’와 ‘나’의 세계는 현존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함을 추구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술을 통한 하나 됨이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진행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의 기획전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상징과 같은 예술공간인 예술의전당과의 협업으로 진행합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최고의 공간에서 전시하는 경험을, 관람객에게는 쾌적한 관람환경과 우수한 작품을 선보이는 기회를 드립니다. 장애인 예술가를 도와 온 지금까지 여정에서 뜻깊은 협업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는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것이 아닌, 예술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가 되고 서로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들이 전시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기획으로 수고하신 박경린 큐레이터님과 13기 입주작가인 김진주, 라움콘, 박유석, 송상원, 유다영, 최서은 작가님 모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기간 장애 예술에 대한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효성그룹 덕분에 다양한 배리어프리를 적극 전시에 구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실무로 수고하신 예술의전당과 서울문화재단 양 기관 실무진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 창 기

예술의전당 사장 인사말
2023년 장애예술기획전 《내가 사는 너의 세계(Your World I Live In)》를 찾아주신 관람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번 전시는 예술의전당과 서울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3기 입주작가 여섯 분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헬렌 켈러의 저서 『내가 사는 세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세계를 살고 있듯, 장애예술인도 느끼고 인식하는 경험이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예술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서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소통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작품은 작가들의 세계를 접할 수 있는 매개이며,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는 단초가 됩니다.

오로지 예술성만으로 편견 없이 작품을 바라본다면, 예술에서 장애는 결여가 아니라 새로운 층만으로 다가올 것이며, 그것을 바라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는 색다른 의미와 영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의전당은 장애예술인을 비롯해서 청년미술상점, 서예청년단체 공동주최전 등 다양한 층위의 예술가들과 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이 예술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하고 유망한 작가들이 미술계에서 성장하는 데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시에 훌륭한 작품으로 참여해주신 송상원, 유다영, 라움콘, 최서은, 박유석, 김진주 작가님, 공동주최 기관인 서울문화재단 이창기 대표님, 박경린 큐레이터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장 형 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소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예술 지원 플랫폼입니다.

2007년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장애예술인 창작공간인 <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로 시작하여, <잠실창작스튜디오>를 거쳐, 2022년 대학로로 이전 후 전 장르 장애예술 지원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16년간 200여명의 장애예술인을 배출하고 장애예술 분야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효성그룹이 후원하는 입주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전 분야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과 장애·비장애 예술인 공동창작워크숍 운영으로 장애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시 소개









내가 사는 너의 세계
Your World I Live In

장애예술기획전 《내가 사는 너의 세계》는 서울문화재단과 예술의전당이 만나 2023년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의 입주한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기획전시다. 본 전시의 제목인 ‘내가 사는 너의 세계’는 미국의 사회운동가로 잘 알려진 헬렌 켈러의 저서『내가 사는 세계(The World I Live In)』(1908)에서 영감을 받아 붙여졌다.

헬렌 켈러의 다른 저서들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와 고민, 그리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주로 담고 있다면, 『내가 사는 세계』에서는 본인이 살아가는 세계 그 자체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한다. 책 속의 내용에 따르면, 헬렌 켈러는 손에 닿는 촉감이나 냄새, 진동과 몸으로 느껴지는 분위기 등을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 그리고 시각과 청각 정보의 부재를 자신의 상상력으로 채워내며 헬렌 켈러의 세계를 인식한다. 책 속에서 자신만이 느끼는 특별한 경험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설명하는 다른 방식이기도 하다.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마주하는 그녀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의 보편성과 독자성을 깨닫게 된다. 결국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의 작가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엿본다. 여기서 ‘나’는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관람객이기도 하다. 우리가 함께하는 ‘세계’ 속에서 서로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한다.

내가 사는 너의 세계
Your World I Live In

전시 《내가 사는 너의 세계(Your World I Live In)》는 서울문화재단과 예술의전당이 함께 준비한 전시다. 2023년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작가 6명의 작품을 전시한다.

이 전시는 헬렌 켈러의 책, 『내가 사는 세계(The World I Live In)』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헬렌 켈러는 시청각장애인*이자 미국의 사회 운동가다.

헬렌 켈러는 많은 책을 썼다. 주로 장애인이 살면서 겪는 문제와 고민,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그런데 『내가 사는 세계』는 헬렌 켈러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내가 사는 세계』에서 헬렌 켈러는 자신이 세계를 느끼고 받아들이는 방식을 이야기한다.

헬렌 켈러는 눈과 귀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인식한다. 손에 닿는 촉감이나 냄새, 물건의 움직임, 몸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를 통해 세계를 상상하고 경험한다. 헬렌 켈러가 특별한 방식으로 느끼는 세계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똑같다.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세계와 만나는 헬렌 켈러를 보며 우리는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 우리의 세계는 누구에게나 똑같지만 누구에게나 다르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세계에 살지만,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과 경험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의 작가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똑같은 ‘세계’에서 함께 살아간다. 서로가 경험하는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자. 세계를 더욱 다양하고 새롭게 느끼게 될 것이다.

*시청각장애인 :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

Your World I Live In The Disability Art Exhibition Your World I Live In is prepared for the artists who have moved into the Seoul Disability Art Center in 2023, in collaboration between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and Seoul Arts Center. The title of the exhibition was inspired by the well-known American social activist Helen Keller's book, "The World I Live In" (1908).

While Helen Keller's other books primarily focus on the realistic problems and solutions faced by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he World I Live In" explores her personal experiences and how she perceives the world. In this book, Keller describes how she recognizes the world through touch, smell, sound, vibrations, and her imagination. By sharing her unique perspective, Keller not only explains her own world but also sheds light on the world we all inhabit.

Through her distinct approach to the world, we come to understand both its universality and its individuality. Our understanding of the world is shaped by our own experiences, you and I can glimpse into the worlds of the artists. By exploring the diverse worlds within our own, we enrich and expand our view of the world we live in.

김진주

김진주 작가는 ‘사물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대한 고민을 그림으로 그린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일상의 사물을 깊이 관찰하다 보니, 사물이 놓인 자리와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사물이 올바르게 놓인 것인가?’라는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진주 작가가 관찰한 식물의 변화를 족필화의 방식으로 선보인다. 대학로에 위치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에 입주하며 마로니에 공원에서 나무를 지켜보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겨울에서 봄, 그리고 가을을 향하며 입주 당시에는 비슷한 모양을 띠었던 나무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꽃과 잎들이 피고 지는 것을 그림에 담는다.

그렇게 무심코 지나쳤던 공원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니 꽃과 나무의 종류만 100개가 훨씬 넘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비슷해 보이는 풍경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각자 다른 모양과 의미를 지닌다. 각기 다른 모양의 나무는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한다. 봄이 되면 꽃을 피우고, 여름이 되면 잎을 성장시킨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되어 내리고, 겨울이 오면 웅크려 봄을 기다린다. 그렇게 김진주 작가의 시선 속에서 마로니에 공원은 ‘우리 자신이 위치하는 곳’에 대한 질문을 새로이 던져보게 한다.

김진주 작가는 일상의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사물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고민한다. 이번 전시에서 김진주 작가는 자신이 관찰한 식물의 변화를 **족필화***로 그렸다.

작가는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에서 활동하며, 가까운 마로니에 공원에서 매일 나무를 지켜보았다. 처음 보았을 때는 나무가 서로 비슷하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다. 김진주 작가는 계절을 따라 꽃과 잎이 피고 지는 나무들을 그림에 담았다.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쳤던 공원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꽃과 나무의 종류만 100개를 훨씬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무들을 멀리서 보면 모두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모양이 전부 달랐다. 자신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었다. 나무는 봄이 되면 꽃을 피우고, 여름이 되면 잎을 성장시킨다. 가을이 되면 낙엽을 떨어트리고, 겨울이 오면 봄을 기다린다.

작가가 관찰하는 마로니에 공원은 ‘우리 자신이 있는 자리’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 족필화 :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발을 사용해서 그린 그림.
발로 연필, 붓 등을 쥐어서 그림을 그린다.

본인과 작품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3기 입주작가 김진주입니다.
 구족화가협회에 가입하게 되면서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물을 관찰하다 보니 사물이 놓인
 자리와 현상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레 그 자리가
 올바른 곳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근래에는 식물을
 깊게 들여다보면서 펜 드로잉 작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각예술가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 진학이나 취업이 쉽지 않아
 고민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우연히
 신문에서 족필화가협회를 보고 추천해 주었어요. 그때 활동하게 되면서
 작가로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물을 오래 관찰하고 이를 작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처음에는 단순히 ‘관찰’하는 행위 자체에 집중했다면,
 오래하다 보니 행위 자체도 진화가 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시간에 따라 식물의 생태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창작센터에 입주하게 되면서
 마로니에 공원에 가서 그곳에 심겨진 식물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마로니에 공원의 나무를 관찰하면서 갖게 된
 의미가 있을까요?

관찰을 하다 보니 마로니에 공원에 심어 있는
 나무 종류가 100그루 이상이 되더라고요. 집과
 창작센터를 오가는 길목이라 자연스럽게 관찰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죠. 늦가을부터 관찰을 시작했으니 4계절을 모두 마주하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잎도 다 떨어지고 가지 밖에 없어서 나무를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잎이 돌아나고 꽃이 피니 구별이
 되더라고요. 문득 이렇게 많은 나무를 그냥 지나치기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림으로 그려 남기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생각했어요.
 마로니에 공원을 대표하는 나무는 은행나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시간에 따른 은행나무의 변화를 선보이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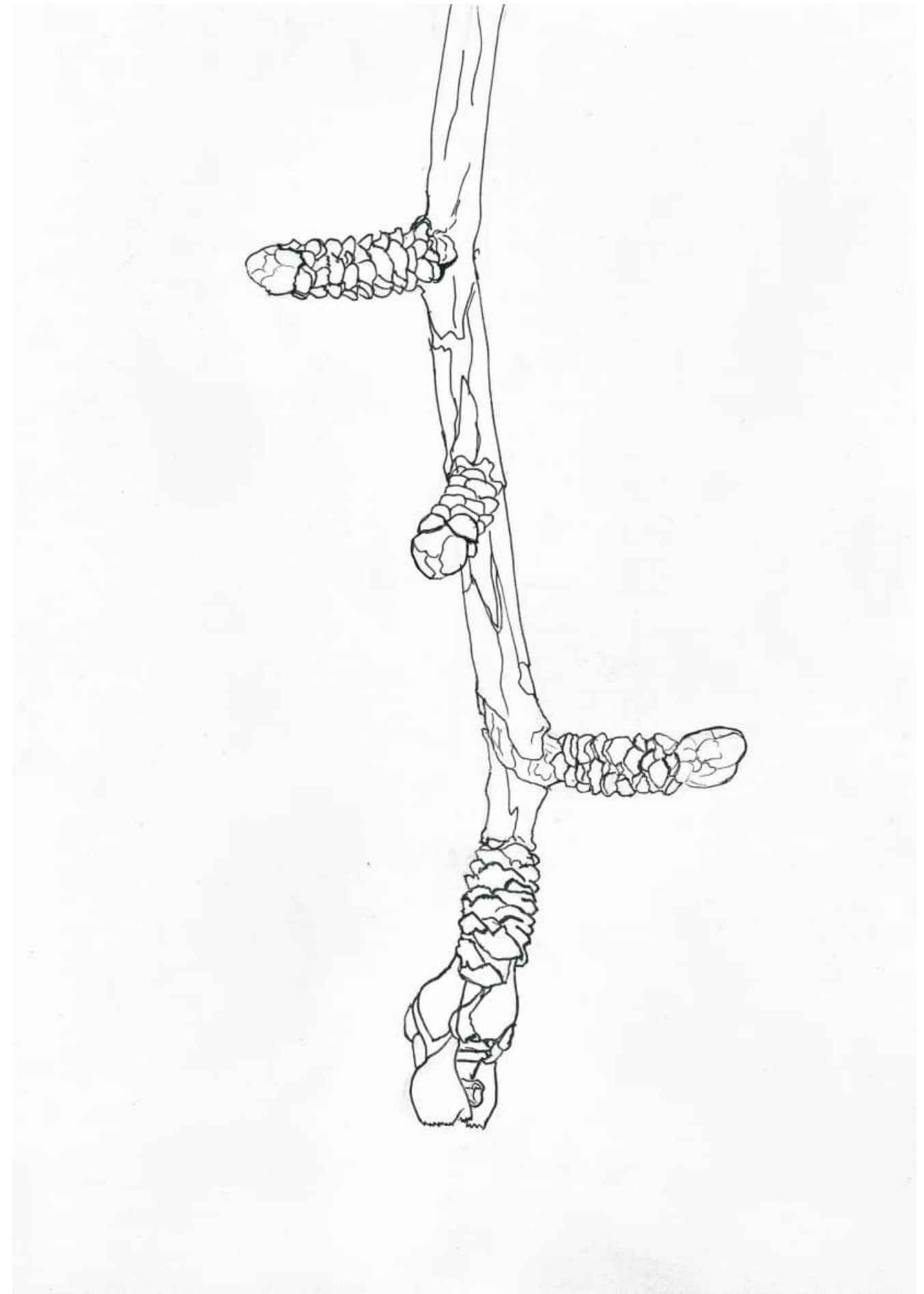
‘사물이 위치한 자리가 정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하였는데, 식물로 관심사가 옮겨 가면서 태도의 변화가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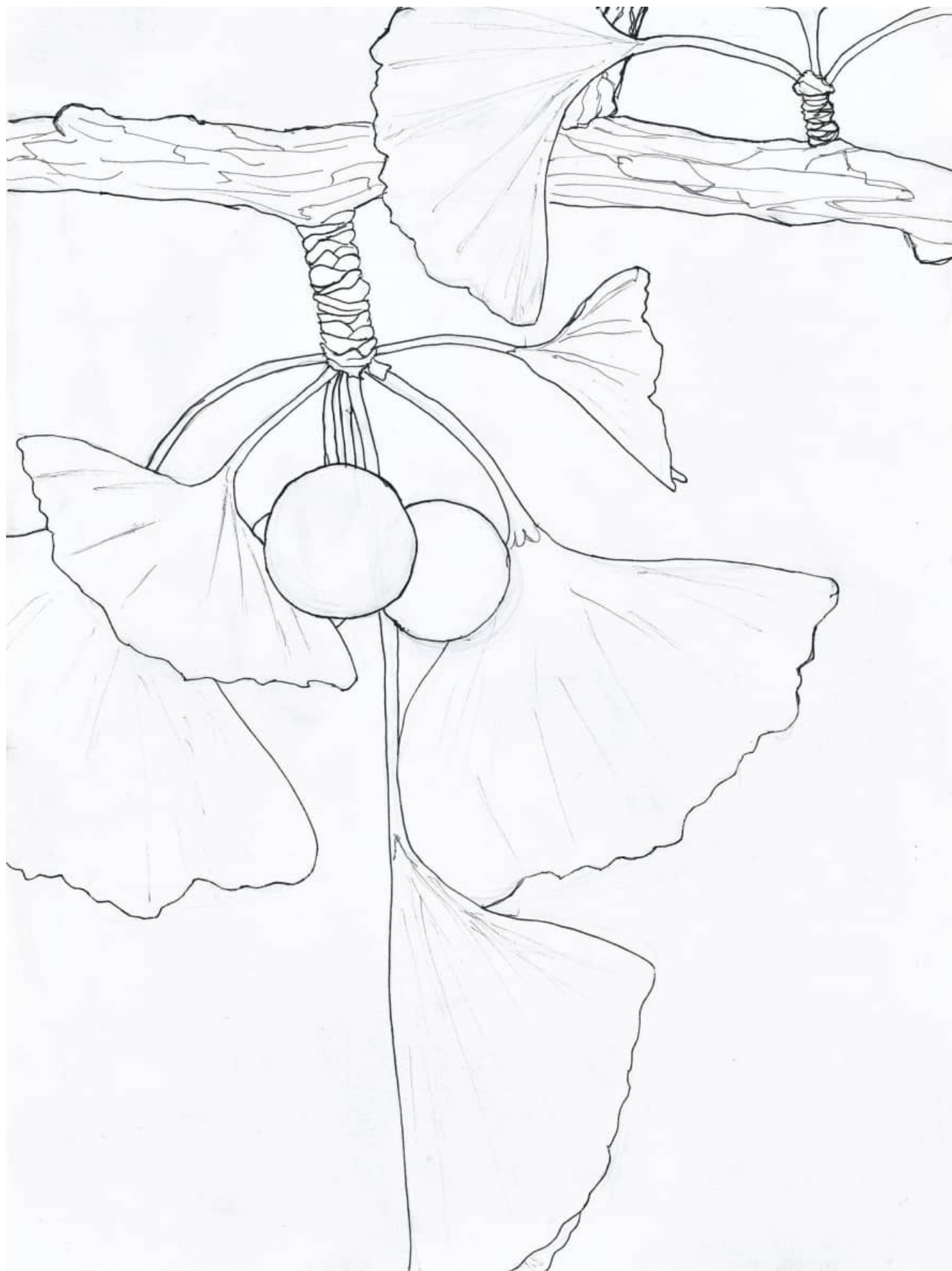
제가 말하는 사물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요. 종이나 펜, 식물과 같은 물리적인 것 외에도 사람의 생각이나 언행

같은 것도 통틀어서 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물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자리가 정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 작업의 시작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작가님이 생각하는 ‘정당한 자리’는 어떤 곳인가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보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할 때, 그 자리가 곧 정당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 역시 일관성과 평정심을 지키면서 제 자리에 있고자 노력하지만, 생각이 이보다 높아질 때가 많아 고민입니다.🌸





라운드

라운드콘은 이기언과 송지은이 만나 이룬 팀의 이름이다. 이기언(이하: Q레이터)는 갑작스럽게 뇌출혈을 겪으면서 몸과 언어에 장애가 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술분야에서 기획자로 활동했던 두 사람은 다른 일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라운드콘’이라는 팀명부터 이들이 진행하는 활동을 설명한다. Q레이터가 양치질을 하며 ‘라운드콘’이라는 단어를 중얼거렸다.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인 ‘라운드콘’은 곧 양치질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이렇듯 뇌출혈을 겪으며 발생한 실어증이 계속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 한국어 같기도 하고 외국어 같기도 한 단어의 조합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도 하고, Q레이터의 세계에서는 의미를 갖는 하나의 언어가 되기도 한다.

언어에서 시작된 감각의 발화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이전에 매일같이 걸던 거리의 풍경이 후천적으로 얻게 된 장애를 통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풍경으로 마주하는 경험을 공유한다. 작은 문턱을 넘는 것이나, 비 오는 날 외출을 하는 것, 혹은 젓가락으로 무언가를 집어 먹는 단순한 행위들이 ‘불편함’이 되었다. ‘장애인’의 기준에서는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설계된 도로나 건물, 일상의 편의를 위한 물건들이 모두 편리하지 않은 것들이다. 따라서 ‘장애인’ 혹은 ‘Q레이터’를 위해 다양한 도구를 변형하거나 고안하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도시의 풍경, 안전하다고 느꼈던 일상, 신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편리한 도구에 숨겨진 차이를 드러낸다.

이러한 차이를 경험하게 하여 Q레이터의 달라진 몸에 이로운, 그리고 나(관람객)에게는 낯선 도구에 접근하게 한다. 그리고 라운드콘이 제안하는 도구를 사용하거나 함께 만들어보면서 삶의 다양성을 깨닫게 하고, 삶을 새롭게 감각하는 경험을 공유한다.

라운드콘은 이기언 작가와 송지은 작가가 만든 팀의 이름이다. 이기언 작가는 작품을 만들고 활동할 때 Q레이터(큐레이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Q레이터는 갑작스럽게 뇌출혈*을 겪으면서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말하는 것도 불편해졌다. Q레이터에게 장애가 생긴 뒤로 송지은 작가와 Q레이터의 일상도 달라졌다.

‘라운드콘’이라는 팀 이름은 두 사람의 작품 활동과 관련이 있다. Q레이터는 실어증** 때문에 원래 말하려고 했던 단어 대신 전혀 다른 말을 하곤 했다. ‘라운드콘’은 Q레이터가 ‘양치질’을 말하려다가 중얼거린 단어이다. 실어증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단어는 한국어 같기도 하고, 외국어 같기도 하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단어여도 Q레이터에게는 의미가 있다.

말할 때 느끼던 불편함은 몸을 움직일 때도 느껴진다. Q레이터가 매일 편하게 걸던 거리는 장애를 얻게 된 뒤로 불편해졌다. 작은 문턱을 넘는 것, 비 오는 날 외출을 하는 것,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것도 모두 Q레이터에게는 불편한 일이 되었다.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도로, 건물, 편리한 물건들은 장애인에게 편하지 않다. 라운드콘은 일상의 도구를 장애인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 보고, 새로운 도구를 만들기도 한다. 라운드콘의 도구는 우리가 편리하다고 느낀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든다. 건물과 도로, 안전하다고 느꼈던 일상, 편리하다고 생각했던 도구는 누군가에게 편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Q레이터가 사용하기 편한 도구는 우리가 보기에는 특이하게 생겼다. 이 도구들을 사용하거나, 함께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체험을 통해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느껴볼 수 있다.

* 뇌출혈 : 뇌의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는 병.

** 실어증 : 말을 이해하는 것, 말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병.

뇌에서 말과 관련된 부분을 다치면 실어증이 생긴다.

라움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라움콘은 송지은과 Q레이터 2인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각자 작가이면서 기획자로 활동했었어요. Q레이터가 갑작스레 뇌출혈을 겪게 되면서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 같아요. 라움콘이라는 팀으로는 경계와 장벽을 허무는 작업과 기획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움콘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나요?

라움콘은 Q레이터가 양치질을 하며 무심코 뱉은 단어에서 정해진 팀명이에요. 얼핏 들으면 외국어 같지만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함이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Q레이터가 예전과는 다른 몸으로 일상을 경험하면서 함께 겪은 일련의 과정을 보고서처럼 기록을 해두었어요. 이러한 활동이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과 많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몸이 경험하는 불편함을 노출하고 주위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계신데 보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Q레이터의 뇌출혈 이후 이전에는 익숙하고 편했던 곳들도 불편해진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사물의 접근성에 대해 다시 고민하는 경험이 늘어났죠. 이를 퍼포먼스, 체험형 오브제 등으로 만들어보게 되었어요. 반드시 병이나 장애가 아니어도, 평균에 맞춰서 만들어진 옷이 나의 몸에는 잘 맞지 않거나, 키가 다소 크고 작기 때문에 일어나는 소소한 불편함을 누구나 경험하잖아요. 일상에서 부딪히는 경험을 통해 신체의 다양성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나에게는 익숙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는 감각, 그리고 접근에 대한 한계 등을 재치 있게 풀어나가고 싶어요. 저희 작업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접근성과 다양성이 될 수 있겠네요.

이번 전시에서는 <한 손 프로젝트> 연작을 중심으로 선보입니다. 프로젝트 전반, 그리고 <한 손 장갑>, <한 손 그릇>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저희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록을 기반으로 하여 작업으로 옮겨가는 편이에요. 불편함과, 불편함으로 인한 접근성의 한계에 대해 계속해서 감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손 프로젝트의 오브제들도 일련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작업입니다. 그릇의 기울기도 손으로 만져보시고, 장갑도 착용해보시고, 한 손 숟가락을 팔에 끼워보기도 하시면서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불편함을 감각하는 작업에 대해 많이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드로잉 노트를 펴두고 ‘한 손 장갑’에 대하여 대화 나누기 시작한다.

Q레이터 (이하 Q) : 장갑을 어떻게 할까? 내 오른손을 잡고 있어봐, 그러면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 부분이 경직현상으로 손바닥을 가리고 있어. 그래서 장갑 자체에 자석을 달아서 손등에서 손바닥, 그리고 팔목까지...(드로잉을 한다)

송지은 (이하 송) : (드로잉을 하며) 손가락과 손바닥의 이음새를 어떻게 연결할지가 어렵지?

Q : 응.

송 : 아니면 손이 경직으로 구부러지니까 장갑에 각을 주는거지. 3단을 이뤄져서 경직 현상에도 자연스럽게 구부러질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말이야. 나는 장갑을 끼워줄 때 손이 부드러울 때는 괜찮은데 경직현상으로 주먹을 쥔 모양으로 되었을 때 어떻게 장갑을 끼울 수 있는지가 고민이었거든. 보통 추운 날은 경직으로 손이 주먹 형태로 말린 상태야. 긴장하지 않거나 날씨가 따뜻하면 손이 펴져 있지만 말이야. 그래서 손이 구부러 졌을 때도 오른손에 장갑을 사용하려면 장갑에 각이 있어야 할 것 같아.



한 손 장갑 ver.1, 2020, 소가죽, 솜, 벨크로, 스웨이드, 1x12x24cm



한 손 장갑 ver.1, 2020, 소가죽, 솜, 벨크로, 자석 단추, 1x12x24cm



한 손 장갑 ver.1, 2020, 소가죽, 양가죽, 솜, 벨크로, 1x12x24cm



한 손 장갑 ver.1, 2020, 소가죽, 솜, 벨크로, 자석 단추, 1x12x24cm

Q : 장갑이 만약에 들어가서 찰칵 눌러서 잠기고 손바닥에서 잠기면 좋겠어. 그리고 장갑을 끼고서 내부에 넉넉해서 손이 구부러지더라도 편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손가락까지 장갑이 끼워졌으면 좋겠어. 길게 말이야. 그러면 공간이 생겨.

송 : 그러면 손가락 부분을 끼워지고 손등부터 손바닥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감싸져서 고정되는 디자인은 어때?

Q : (샘플을 손에 끼어 본다) 좋네!

송 :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을 끼우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함께 덮는 방식으로 진행해보자.

Q : 그런데 오른손 장갑만큼 왼손 장갑도 중요해. 나는 지팡이를 짚기 때문에 오른손이랑 왼손의 모양이 같은 장갑을 끼기 어려워. 그리고 오른손 장갑은 왼손으로 낄 수 있지만 왼손 장갑은 왼손 스스로 꺼야해.



한 손 장갑 ver.2, 2022, 양가죽에 자수, 스웨이드, 코듀로이, 모직, 흑청, 장갑 클립, 1x12x24cm

식탁 위에서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기울인 뒤, ‘한 손 그릇’에 대하여 대화를 시작한다.

송 : 재료는 무엇으로 할 생각이야?

Q : 실리콘으로 할 수 없을까? 그릇을 포함해서 바닥까지 제작을 해보는 거지. 아니면 그릇을 이렇게 기울여지게 만든다고 했을 때, 아랫면에 기울기가 생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분리와 타협을 찾기 가장 가능한 디자인이라는 것이지.

송 : 그릇에?

Q : (손으로 기울기를 만들며) 이렇게 된 거 있잖아. 얼핏 보았을 때는 ‘그냥 그릇이구나!’ 하는데 그릇 안을 들여다보면 기울기가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릇과는 달리 한 손 그릇의 그릇은 기울기가 높아서 접시를 기울이지 않고 숟가락만으로 국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작업실에서 ‘한 손 수저’에 대한 대화가 진행된다.

송 : 우리가 젓가락이나 포크, 숟가락을 사용할 때, 어떤 사람은 오른손잡이,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고 어떤 사람은 양손잡이니까 워크숍을 진행할 때 다양한 속도를 제안해 보는 것은 어떨까? 뭔가를 짚는 행위를 사람들이 이번 작업에서는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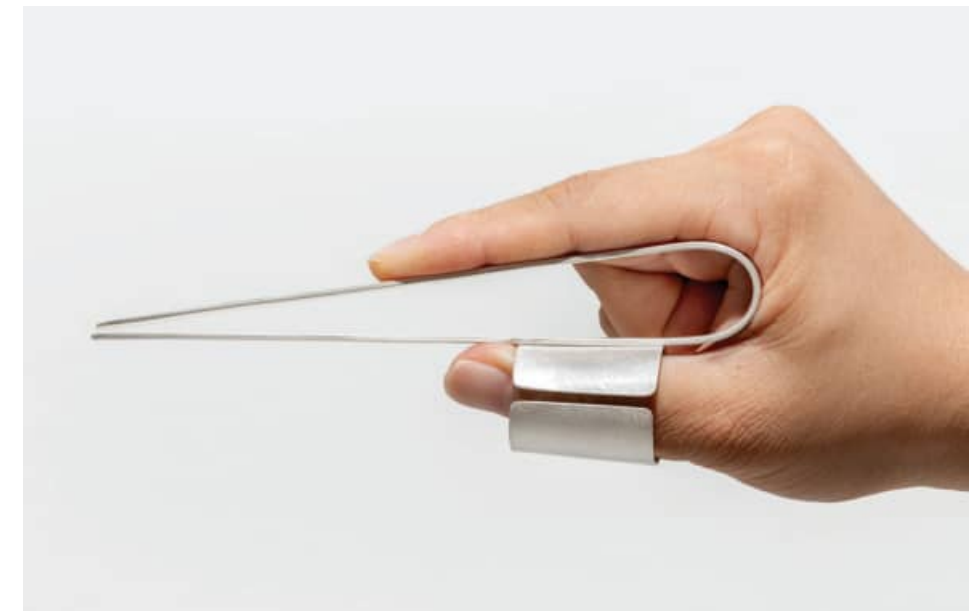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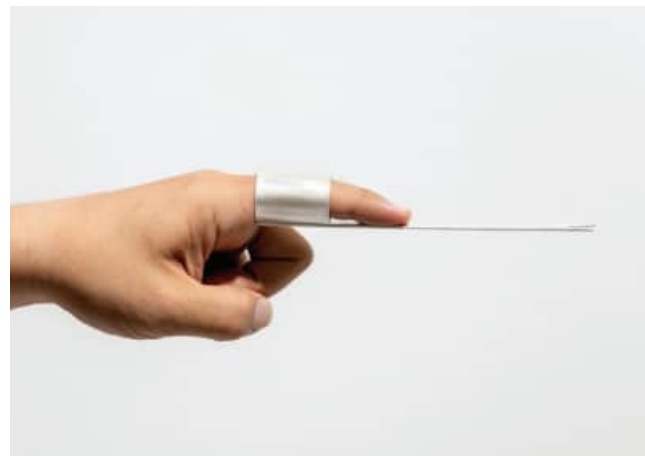
Q : 사람들이 젓가락, 숟가락 그리고 포크를 사용하면서 잘 사용 못해도 괜찮아. 이것을 손에 끼어 보고 방향성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면 오른손잡이인가요? 왼손잡이세요? 물어보고 ‘저 오른손잡이인데요’ 그러면 ‘네, 그럼 지금부터 왼손을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안해 볼 수도 있지.

송 : 그건 너무 억지스럽지 않아?

Q : 어찌되건 사람들이 경험을 해본다는 것이 중요하지. 나는 한 손으로 금속으로 만든다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 나무로 만들 생각도 해봤는데 은이 더 멋질 거 같아. 순도 100% 보증서 만들어서 케이스 안에 같이 넣어두는 거지. 투명 아크릴 케이스도 있으면 좋겠어.

송 : 그럼 사람들이 만질 수 없잖아. 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작업을 만져보는 것이 한 손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 뭔가를 경험해 보는 과정 자체에서 다양성에 대한 공감대가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거든.

Q : 마비라는 것은 실제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거야. 관념이야. 손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마비된 손에 사용하기 보단 사용할 수 있는 왼손으로 나는 젓가락을 사용해야 하는데 몸 방향이 바뀌게 아주 어색하다는 말이지.



박유석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흔했던 풍경이 있다. 아파트 단지나 동네 입구 근처 모래가 있는 놀이터에서 삼삼오오 모여 놀고 있는 아이들이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고 있으며, 별 것 아닌 것으로도 한참을 웃고 떠드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박유석 작가의 어린 시절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돋보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 태양을 바라보기도 하고, 사물에 태양을 비추어 보기도 했다. 눈으로 바로 볼 수 없는 태양에 지지 않겠다며 똑바로 바라보다 눈을 감는다. 그러면 눈에 아른거리는 태양의 잔상이 어둠 속에서 피어나며 마음에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듯 태양을 쫓아다녔던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하여 시력이 나빠졌다. 그러나 이때의 기억은 작가의 작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쳐 깊이 천착하는 주제가 되었다.

빛이 만들어내는 색의 변화는 그 자체로 인간이 살아가며 느끼는 여러 감정의 변화를 은유한다. 작가는 우리가 보거나, 혹은 보고 있다고 믿는 ‘색의 환영’을 영상을 통해 재현한다. ‘색의 환영’은 여러 음악가와 협업한 소리로 전환되어 청각을 자극한다. 시각의 경험이 청각으로 전유되고, 공감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경험은 작가가 어린 시절 태양을 보며 느꼈던 감정을 공유한다. 아른거리는 빛의 환경 속에서 경험한 안정과 안도의 마음이 그것이다. 따라서 관람객을 전시장에서 빛과 소리를 통해 변화하는 감정의 상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전에는 동네 놀이터에 가면 어린이들이 모여서 노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어린이들은 뭐든지 가까이에서 자세히 관찰하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보이고, 잘 웃는다. 박유석 작가의 어린 시절도 비슷했다.

박유석 작가는 밖으로 나가 태양을 바라봤다. 돋보기로 태양을 보기도 했다. 태양을 바라본 후에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태양의 빛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럴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박유석 작가는 이때의 느낌을 기억하며 작품을 만들고 있다.

빛은 여러 가지 색으로 변한다. 우리는 살아가며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낀다. 빛의 변화는 사람의 감정이 변하는 것과 비슷하다. 박유석 작가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빛의 색과 감정을 영상으로 표현했다. 영상에는 음악가가 만든 소리도 담겨 있다.

작품을 보면 작가가 어렸을 때 태양을 보고 눈을 감았을 때 느꼈던 편안한 감정이 느껴진다. 작가가 보여주는 빛과 소리는 우리가 변화하는 감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인과 작품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난 후의 잔상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을 중심으로 작업하는 박유석입니다.

어릴 적부터 태양을 바라보고 난 뒤 망막에 남아있는 잔상을 관찰하는 놀이에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눈 앞에서 아른거리는 색 그리고 빛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과 안정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빛과 색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탐구하게 되었고 그 감정 상태를 주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빛과 색, 그리고 소리를 함께 사용하는 미디어 작품을 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소리는 작업의 형식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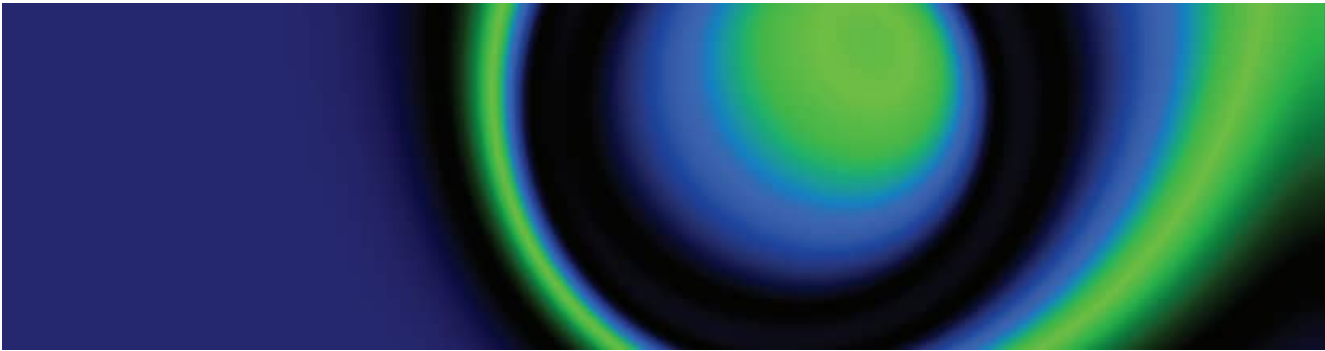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제 작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소리는 이런 시간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상 매체를 주로 활용하는 것 또한 소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출발합니다. 빛은 한 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합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이미지가 빛의 끊임없는 변화를 표현하고 상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반대로 소리는 내면의 감정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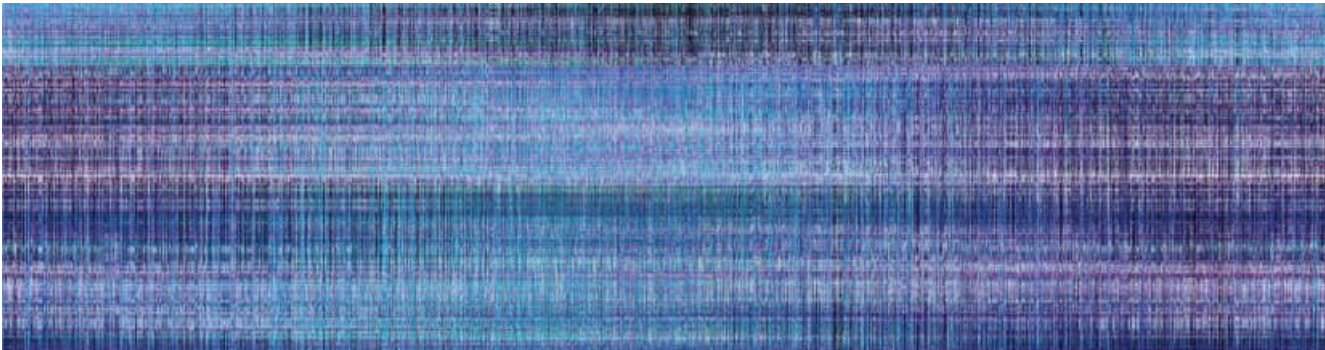
빛은 곧 색이라고도 합니다. 작품에서 다양한 색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색의 선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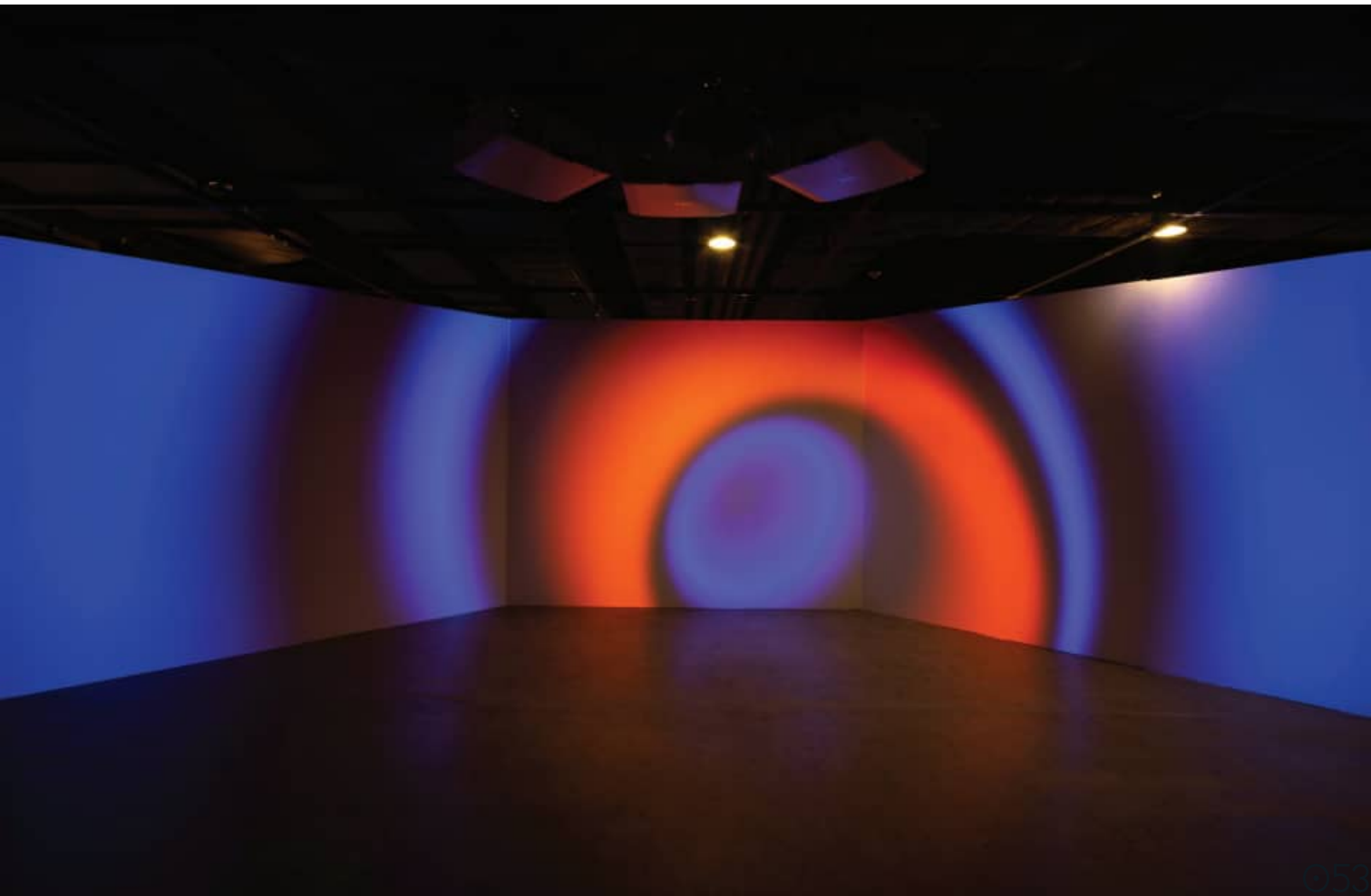
주로 직관적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색에는 어떤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색에 따라 사람에게 전달되는 감정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색을 바라보는 감정을 바탕으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는 색이 무엇인지 계속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의 직관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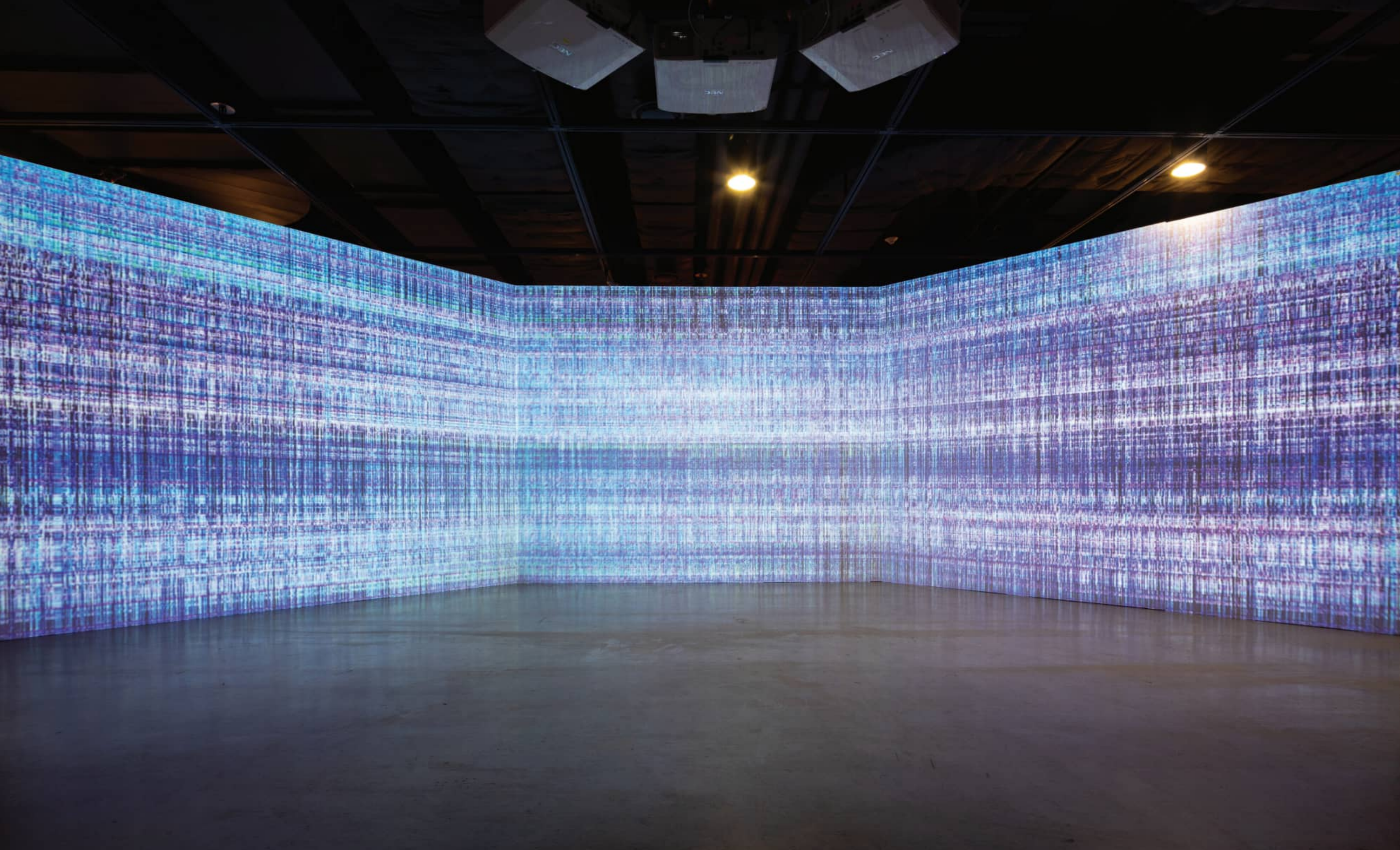


창작센터 입주를 통해 작품의 변화가 있었나요.

입주 후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작가님의 시선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를 통해 제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 또한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사는 너의 세계’ 전시가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원

송상원 작가는 자연에서 주제와 소재를 찾아 그림을 그린다.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 자연스럽게 기후위기와 변화하는 지구의 환경에 따라 멸종되고 있는 동식물을 다루는 것으로 이어졌다. 자연의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걱정하는 등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근작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아야만 볼 수 있는 것을 관찰과 상상력을 통해 그려낸다. 예를 들어 꽃이 있다면, 정원을 화려하게 수놓은 꽃보다는 이름 모를 야생화에 주목한다. 그리고 꽃이 만개한 모습 보다는 주변부로 여겨졌던 꽃의 줄기, 이파리, 그리고 땅속에 묻힌 뿌리나 공생하고 있는 벌레 등을 주목한다.

그림의 주제에 다가가는 접근 방식의 변화는 무조건 고민하고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우리와 공존하는 것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그리고 작은 생명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 대한 문제를 더 넓은 틀에서 고민하는 방식으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또한, 주변의 사물을 스치듯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돋보기로 세상을 보듯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세계를 드러나게 한다. 이러한 세계는 단순히 크기가 커진 세계가 아니라 이전보다 깊어진 상상력을 담아낸다.

송상원 작가는 자연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 작가는 자연에 관심을 가진 뒤로, 기후위기와 변화하는 지구의 환경 때문에 멸종되고 있는 동식물에도 관심이 생겼다.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난 마음, 지구를 걱정하는 마음을 그림으로 솔직하게 표현해 왔다.

그런데 최근, 작가는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아야 볼 수 있는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관찰한 것을 새롭게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린다. 예를 들어 꽃이 가득 핀 정원이 있다면, 화려한 꽃보다는 이름도 잘 모르는 야생화를 바라본다. 꽃이 활짝 핀 모습보다 눈에 잘 보이지 않던 꽃의 줄기, 이파리, 땅속에 묻힌 뿌리나 주변의 작은 벌레 등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린다.

이제 작가가 자연을 그림에 담아내는 방식이 변했다.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던 작가의 그림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연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림으로 변한 것이다. 작은 생명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자고 이야기하는 듯하다.

작가는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자세하게 관찰한 세계를 그린다. 우리는 작품을 통해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 단순히 크기가 커진 세계가 아니라, 깊은 상상력이 더해진 작가의 세계를 작품 속에서 만날 수 있다.



본인과 작품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연에서 소재를 찾아 그림을 그리는 작가
 송상원입니다. 최근에는 꽃의 화려함에 가려진
 잎과 뿌리, 곤충과 풀 벌레 등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아야만
 볼 수 있는 존재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소재를 찾게 된 이유가 있는지,
 그 중에서도 작은 존재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자연과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에 보금자리를 잃어가는
 동물들을 그렸어요. 최근에는 꽃의 화려함에 가려진
 잎과 뿌리, 작고 소중한 생명체들의 존재감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의 눈에 띄는 것보다는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만
 보이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소중하고 귀하며, 아름다운
 존재니까요. 이러한 존재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받고,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공존하는 세상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이전에는 기후 위기 속에서 멸종되어 가는 동물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주된 관심사나
 주제가 변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자연에 관심을 갖다 보니 당연히 기후, 환경 그리고
 지구에 대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기후 위기에 대한 고민을 직접적으로 작업에
 드러내는 방식을 선택했다면 현재는 다른 시각과
 시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무조건 고민하고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모든 동식물이 소중한 존재임을, 작은 생명체들과
 공생하며 지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전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62
 숲 속 풍경-카멜레온, 2023, 캔버스에 아크릴, 97x162.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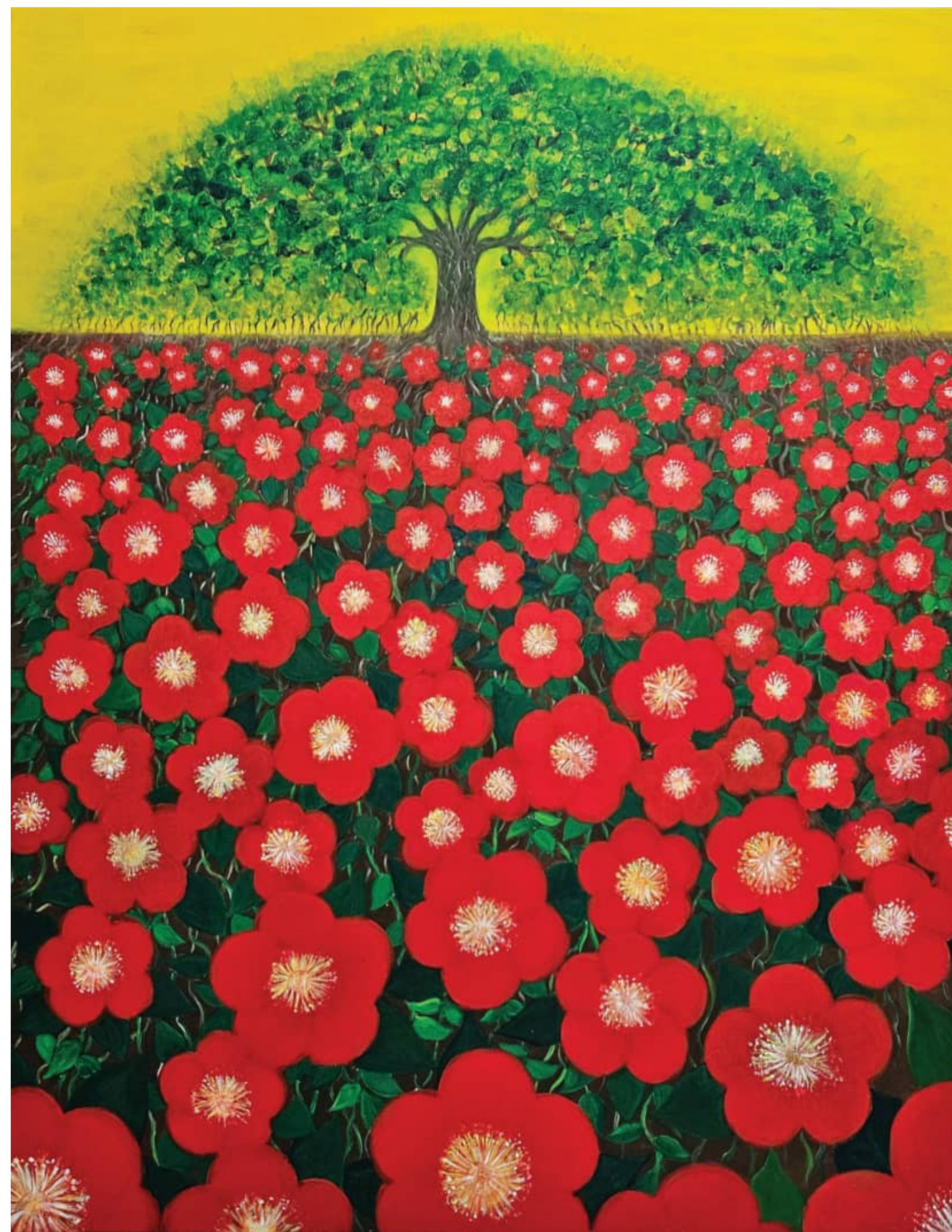
꽃과 파랑새, 2023, 캔버스에 아크릴, 72.7x90.9cm



두 얼굴의 끈끈이 주걱, 2023, 캔버스에 아크릴, 80.3x100cm







유다영

유다영 작가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에 글과 점자를 더해 작품을 만들어 왔다. 사진을 찍는 순간에 느낀 점을 글로 표현하고, 그 글을 점자로 바꾸어 사진 위에 담았다. 눈으로 보던 것이 사진이 되었고, 사진이 읽을 수 있는 글이 되었으며, 글이 만질 수 있는 점자가 되는 것이다.

점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점자가 언어가 아닌 그림이나 모양으로 보인다. 한글로 된 글에 익숙한 사람들은 작품 속 점자를 보며 당황스러움을 느낀다.

유다영 작가는 이 전시에서 사진, 점자, 글이 담긴 영상 작품을 보여준다. 작품의 사진과 점자와 글은 하나이다. 서로 떼어낼 수 없다. 우리는 눈으로 보며, 언어로 이해하며, 이야기로 들으며 이 작품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다.



A Song Whispered in Silence 침묵 속에 속삭이는 노래,
2023, 단채널 비디오, 흑백, 무음, 5분 5초

유다영 작가는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에 글과 점자를 더해 작품을 만들어 왔다. 사진을 찍는 순간에 느낀 점을 글로 표현하고, 그 글을 점자로 바꾸어 사진 위에 담았다. 눈으로 보던 것이 사진이 되었고, 사진이 읽을 수 있는 글이 되었으며, 글이 만질 수 있는 점자가 되는 것이다.

점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점자가 언어가 아닌 그림이나 모양으로 보인다. 한글로 된 글에 익숙한 사람들은 작품 속 점자를 보며 당황스러움을 느낀다.

유다영 작가는 이 전시에서 사진, 점자, 글이 담긴 영상 작품을 보여준다. 작품의 사진과 점자와 글은 하나이다. 서로 떼어낼 수 없다. 우리는 눈으로 보며, 언어로 이해하며, 이야기로 들으며 이 작품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다.



A Song Whispered in Silence 침묵 속에 속삭이는 노래,
2023, 단채널 비디오, 흑백, 무음, 5분 5초

본인과 작품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진 매체를 중심으로 시각 예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정의를 확장하고 변형해가면서 좀 더 흥미롭게 작업할 수 있는 매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로 텍스트와 사진을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텍스트가 작업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텍스트와 사진이라는 매체를 어떻게 확장하고 변형해가는지, 작업 과정이 궁금합니다.

촬영을 나가기 전에 제가 평소 생각하던 단어를 조각 내고 정리합니다. 단어를 촬영하기 전 기록하는 과정이 사진의 이미지로 표현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스케치라고 생각해요. 사전을 통해 유사한 단어들을 찾고 이들의 의미를 탐구한 후 가장 적합한 단어를 선택하고, 이를 이미지와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사진, 글, 점자를 함께 활용한 작품을 주로 선보이시는데, 사진 위의 점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요소 사이에는 어떤 상관성이 있나요?

사진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제 시선을 사로잡은, 직관적으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진을 찍을 당시 제 감정이나 머리 속에 떠올랐던 단어는 글로 등장합니다. 사진에 새겨진 점자는 누군가는 읽을 수 있는 글이고 이미지이지만 누군가는 읽을 수 없어요. 사진과 점자, 텍스트 사이의 연결고리나 서로를 지지하는 의미는 없지만 각자 자신의 자리(매체특정성) 안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소리 없는 영상 작품을 선보이는데, 사진과 텍스트, 점자,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ll Did Not Go Away. What Is Missing Is the Mind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2022, 캔버스에 UV 점자 프린트, 19.5x29.5 cm



Where We Waited It Wasn't There and I Couldn't Get in 우리가 기다린 곳에는 없었고
돌아갈 수 없었다, 2022, 캔버스에 UV 점자 프린트, 19.5x29.5 cm

최서은

최서은 작가는 나무를 깎아 만든 판화를 통해 본인이 꿈꾸는 가상의 정원을 표현한다. 가상의 정원은 자연의 다른 이름이면서 동시에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와 같은 곳이다. 작가 본인이 꿈꾸는 자연 속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과 식물들로 가득하다.

이들은 모두 ‘꿈꾸는 정원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들’로 선택 받은 사물이다.

최서은 작가에게 판화는 작품의 주제를 강화 시키는 주요한 형식이다. 다양한 판화 기법 중에서 나무를 깎아 만드는 목판화를 선택하였다. 나무는 그 자체로 인간에게 유용하고, 아낌없이 베푸는 존재다. 살아서는 산소를 만들어주고, 물을 머금어 준다. 햇빛을 가려 그늘을 만들고, 나무 주변으로 크고 작은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다. 죽은 나무는 연료로, 자재로, 종으로 목적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면서 아낌없이 베푼다.

나무로 제작한 판화는 다른 판화 매체와 비교하면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나무판을 만지면 친근하고 포근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 손과 귀가 모두 섬세하게 발달한 작가에게 나무의 존재는 따뜻한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매개체다. 이를 통해 작가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동식물들이 담고 있는 마음의 모양을 새긴다.

최서은 작가에게는 작가만의 상상 속 정원이 있다. 정원은 작가가 좋아하는 동물과 식물로 꽉 채워져 있다. 모두 작가가 꿈꾸는 정원에 초대하고 싶었던 동물과 식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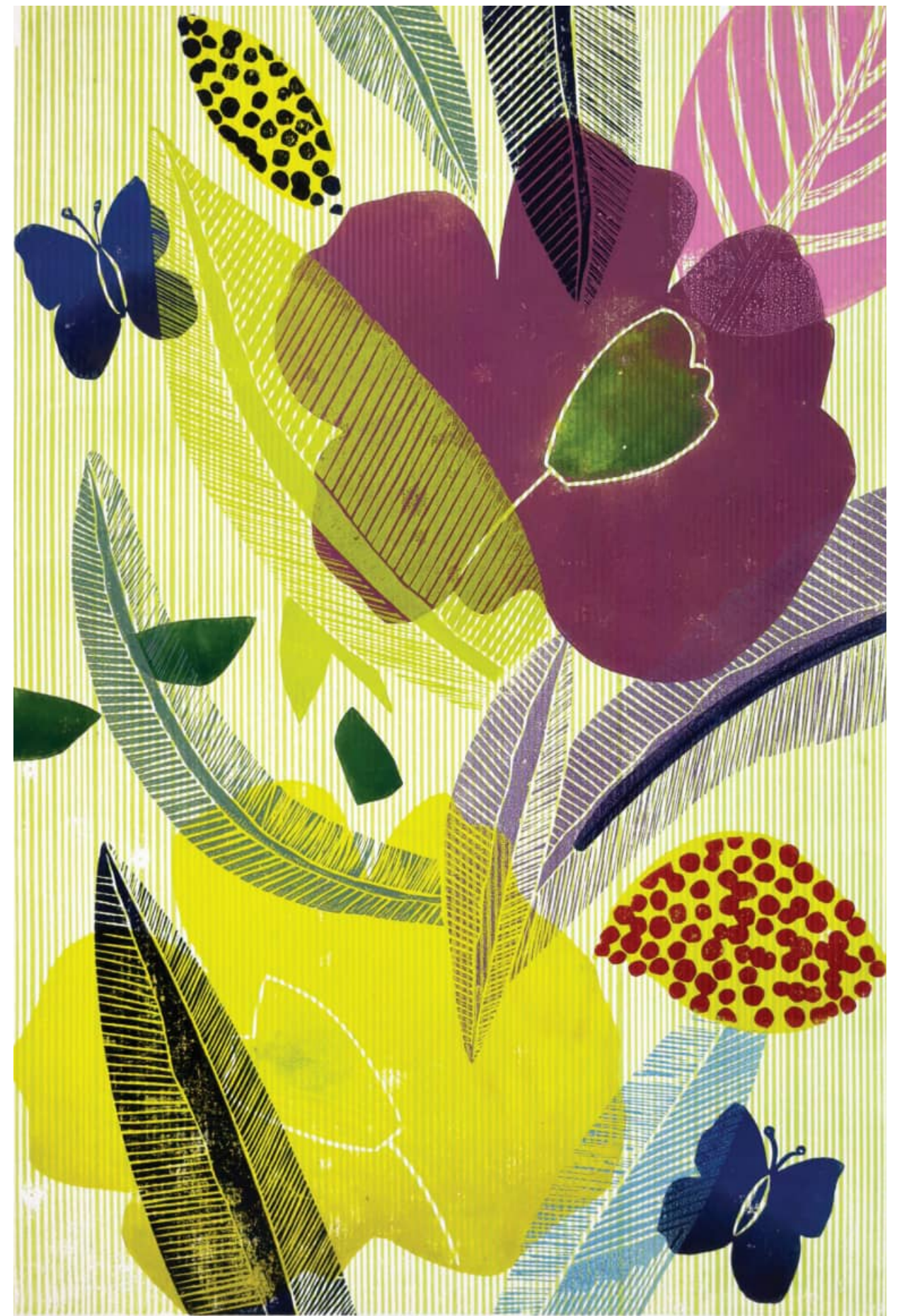
최서은 작가는 판화를 만든다. 판화는 평평한 판을 깎아서 그림을 새기고, 그 위에 물감을 발라 종이에 찍어서 그린 그림이다. 판화를 만들 때 나무, 돌, 금속, 고무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다. 최서은 작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나무를 선택했다.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깨끗한 산소를 만들어 주고, 햇빛을 가려 그늘을 만들어 준다. 나무 주변에 여러 동물과 식물들이 살기도 한다. 나무를 태워서 불을 피울 수도 있고, 나무로 종이, 책상, 의자 등을 만들 수도 있다. 다른 판화 재료를 사용할 때보다 환경을 해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나무를 만지면 포근한 느낌이 든다.

작가는 손과 귀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손으로 직접 나무 판화를 만들며 나무의 따뜻함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우리는 작가의 작품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 다양한 동물과 식물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장미1, 2022, 종이에 목판, 28x40cm



본인과 작품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목판화를 통해 제가 꿈꾸는 정원을 표현하는 작가 최서은입니다. 가상의 정원은 자연의 다른 이름인 동시에, 제가 좋아하는 동식물들로 가득 찬 유토피아 같은 공간입니다. 숲길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견하는 자연의 풍경, 요소들을 좋아하게 되었고, 이를 목판화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판화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데 목판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나무를 만지면서 작업하다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촉감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무는 인간을 비롯한 다른 생명체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 나무를 재료로 삼는 목판화를 작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판화 재료에 비해 목판화가 좀 더 자연 친화적이라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나무를 통해 자연을 떠올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나무를 만지고 있을 때 따뜻한 촉감을 느꼈다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따뜻함이라는 것이 여러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뜻함이라는 것은 여러 방면, 그리고 여러 의미에서 따뜻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의 ‘아낌없이 주는 이미지’가 저로 하여금 나무를 따뜻한 존재로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판에 비해 실제로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고요. 제가 촉감에 예민하다 보니 가끔씩은 장갑을 벗고 나무를 직접 만지면서 작업하고 그래요.

초기에는 추상작업을 하시다가 최근 구상작업을 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가장 큰 이유는 자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고, 일상의 풍경에 좀 더 집중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느끼는 것들을 작품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 속으로 자연이 많이 개입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자연을 소재로 한 구상작업을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는 동물, 식물의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여 흥미롭게 작업하고 있어요.

판화라는 매체로 인하여 색의 선택이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판화를 하면서 색을 선택하고 종이에 자리잡게 하는 과정을 굉장히 좋아해요. 판화라고 하면 검정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 색상을 통해 제 작업이 겹겹이 쌓여가는 것이 정말 즐거워요. 그렇지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유성 컬러 잉크는 삼원색을 포함한 6개의 색상만 사용이 가능해서,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Memory 1, 2018, 종이에 목판, 38x5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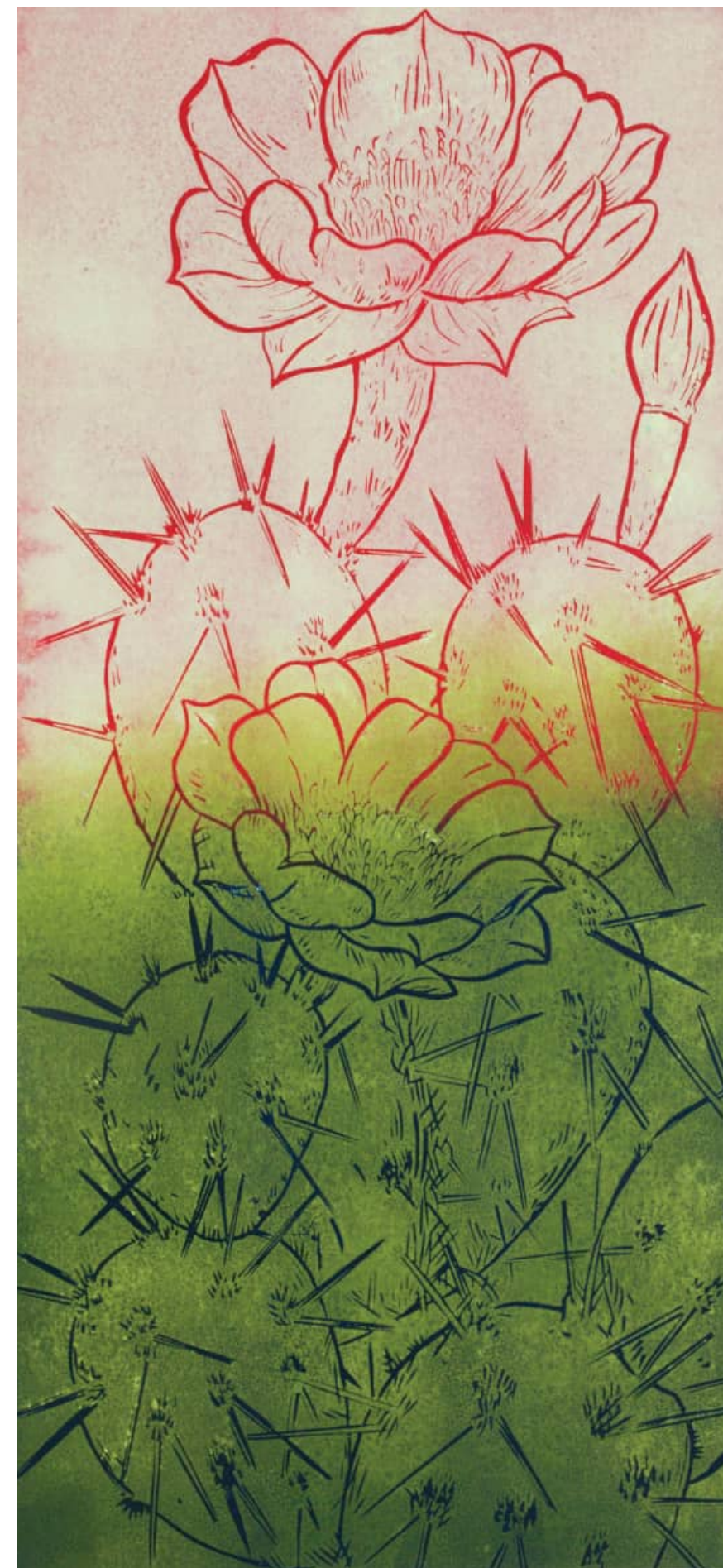
The Flowing II, 2020, 종이에 목판, 52x8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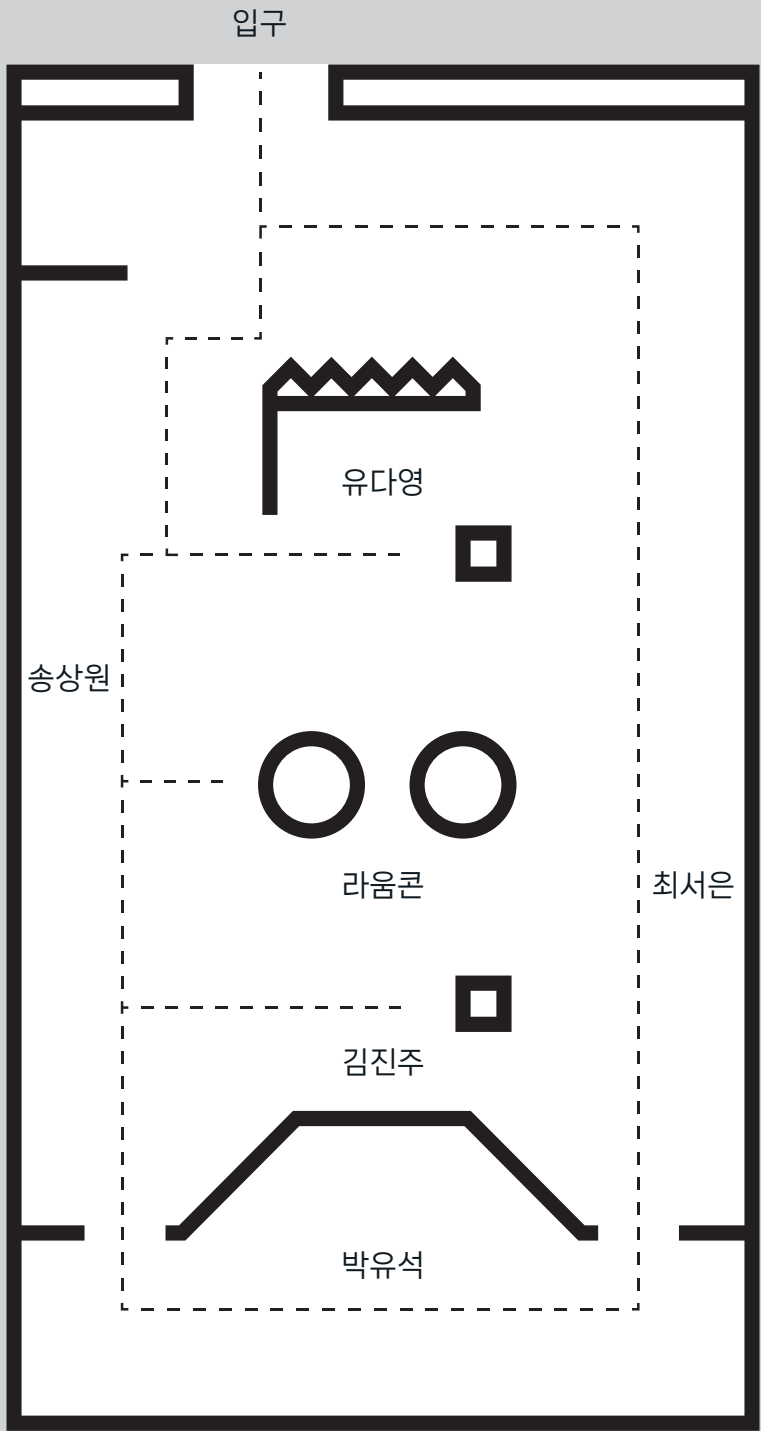


Memory 2, 2018, 종이에 목판, 38x54cm



The Flowing I, 2020, 종이에 목판, 52x80cm





오디오가이드(시각장애이용 전시해설 적용)

#1. 인사말

장애예술기획전 《내가 사는 너의 세계》를 찾아주신 관람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의 오디오 가이드를 맡게 된 배우 안효섭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10월, 서울문화재단과 예술의전당이 함께 주최하고, 효성이 후원하는 특별한 전시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전시는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에 입주한 작가들이 참여한 전시입니다. 2023년 이곳에 입주한 김진주, 라움콘, 박유석, 송상원, 유다영, 최서은, 이렇게 작가 6(여섯)팀과 박경린 큐레이터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멋진 작가분들을 소개할 생각에 벌써 마음이 설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전시를 감상해볼까요?

#2. 들어가며

본 전시가 열리고 있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은 약 357제곱미터 정도의 크기입니다. 약 108평으로, 입구 쪽의 폭보다 안쪽으로 갈수록 폭이 길어지는 직사각형 구조입니다.

지금 서 계신 곳 바로 앞에 벽면 형태의 구조물이 놓여 있고, 전시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안내소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동 및 전시 관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소에 있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세요.

다시 전시로 돌아가, 앞에 쓰여 있는 제목을 읽어봅니다.

내가, 사는, 너의, 세계.

본 전시의 제목인 ‘내가 사는 너의 세계’는 미국의 사회 운동가로 잘 알려진 헬렌 켈러가 1908년에 지은 『내가 사는 세계(The World I Live In)』라는 제목의 책에서 영감을 받아 붙여졌습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볼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는 많은 글을 남기는 것으로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그녀의 많은 책 중에서 이 책에 영감을 받아 제목을 짓게 된 이유는,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헬렌 켈러만의 방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 속의 내용을 따라가 보면 눈과 귀로 접하는 정보가 아닌 냄새와 피부에 닿는 감각으로 경험하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보고 듣는 정보가 많은 사람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헬렌 켈러는 냄새로 공간을 파악하고, 몸에 닿는 촉감으로 자연의 변화를 인지한다고 합니다. 부족한 시각과 청각의 정보는 상상력으로 그녀만의 특별한 세계를 채워갑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삶을 경험하고 채워나가는 방식은 아마도 모두 다를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책을 통해서 우리는 비슷한 삶의 모양을 깨닫기도, 혹은 저마다 다른 인식의 방식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의 풍경은 비슷할지라도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수없이 다양한 형태로 변주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작가들의 세계로 옮겨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나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타인이 살아가고 있는 ‘너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나’와 ‘너’가 만나 ‘우리’의 세계를 완성해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이제 전시 제목이 적혀 있는 벽면과, 오른쪽에 위치한 안내소 사이의 통로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바닥에 점자 유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시 관람 동선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 송상원

오른쪽 벽면을 따라 송상원 작가의 회화 작품 다섯 점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초록색 바탕에 알록달록한 색으로 가득한 꽃밭을 담은 〈꽃잔치 1〉을 시작으로 〈두 얼굴의 끈끈이주걱〉, 〈숲속의



작은 친구들〉, 〈숲속 풍경〉, 〈꽃보다 잎사귀〉와 같은 제목의 작품들이 이어집니다.

제목에서부터 쉽게 눈치챌 수 있듯, 송상원 작가는 자연을 주제로 합니다. 자연으로 들어가 자세하게 관찰하고, 깊게 들여다봅니다. 그림의 주인공은 활짝 핀 꽃이 아닙니다. 화려하게 핀 꽃보다는 그 아래를 받치고 있는 줄기나 잎사귀, 땅속에 가려진(숨어 있는) 뿌리 등을 주목합니다.

초록이 넘실대는 숲의 풍경을 지나면, 꽃을 그린 세 점의 작품이 이어집니다.

제목은 각각 〈바위틈에 핀 에델바이스〉, 〈곱게 핀 할미꽃〉, 〈꽃과 파랑새〉입니다. 바위틈에 핀 하얀 에델바이스, 보라색 망울이 고운 할미꽃, 꽃밭에 날아든 파랑새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도 작가는 누구나 알고 있는 화려한 꽃보다는 작게 피어난 야생화에 주목합니다. 이렇듯 송상원 작가는 돋보기로 본 듯 자연을 바라보며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던 세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송상원 작가의 그림을 충분히 감상하셨다면, 이제 뒤로 돌아볼까요?

점자블록을 따라 이동하시면 다음 작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4. 라움콘

이곳엔 무릎과 허리 높이쯤 되는 두 개의 둥근 좌대가 놓여 있습니다. 좌대 옆에는 사진 4(넉)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예술계에서 오랜 시간 기획자로 활동했던 송지은과 이기언이 함께 작업한 결과물이 놓여 있습니다.

좌대 위에 놓인 것은 한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릇과 은으로 만들어진 한 손 젓가락, 한 손 수저, 한 손 포크 등의 작품입니다.

옆에 배치된 4(넉)점의 사진은 한손 수저와 포크, 젓가락을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물을 생각하고 만든 팀의 이름은 ‘라움콘’입니다.

라움콘은 갑작스럽게 뇌출혈을 겪으며 신체와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장애가 생긴 Q레이터의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알파벳 대문자 ‘Q’와 한글 ‘레이터’를 조합한 Q레이터는 이기언의 활동명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이전까지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범함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비 오는 날 외출을 하거나, 젓가락으로 무언가를 먹는 일상을 이전에 사용했던 우산이나 수저와 같은 도구들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걷던 대학로의 길은 턱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어 휠체어가 쉽게 지나가기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라움콘은 이러한 변화를 혼자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설계된 도시의 풍경이 다른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거나 위험한 공간이 될 수도 있음을 퍼포먼스나 워크숍 등으로 관객과 공유합니다.

앞에 놓인 그릇들도 언뜻 보기엔 평범한 그릇처럼 보이지만, 수저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음식을 입에 대고 먹을 수 있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릇이 Q레이터에게는 음식을 먹는 수저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처지가 바뀌면 세계도 변화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라움콘 팀이 제안하는 <한 손 젓가락>이나 <한 손 장갑>등을 만지고 착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놓인 젓가락, 장갑, 그릇 등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20초 정도 쉬고] :

젓가락을 손에 끼워 보셨나요? 장갑은 어떠셨어요?

약간 어색하거나 불편하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약간 불편했습니다.

해당 도구들은 Q레이터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하게도 Q레이터에게는 익숙한, 그리고 저에게는 낯선



도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용해보니 새삼 신체의 다양성, 그리고 삶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제 전시실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주 작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5. 김진주

김진주 작가는 손을 사용하기 어려워 발로 그림을 그립니다. 김진주 작가의 작품 활동의 전반을 아우르는 주제는 ‘사물이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한 자리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주변의 풍경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물을 깊이 바라보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사물을 보고 또 보다 보니 ‘사물이 올바르게 놓인 자리’란 어디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에 입주하며 작가의 일상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대학로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던 무렵 처음 입주를 했을 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은 조금은 황량하고 스산한 풍경이었습니다.

공원에 앉아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다 보니 햇빛은 나뭇가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잎이 피고, 꽃이 돋아나기 시작하니 이제야 나무의 이름을 찾게 되었습니다. 김진주 작가는 그렇게 마로니에 공원의 변화하는 시간을 아주 느리지만 깊이(깊이 있게) 그림으로 옮겨옵니다.

김진주 작가는 약 30~50cm 크기의 흰색 종이 위에 라이너 펜을 사용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은행나무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담아냅니다.

총 5(다섯)개의 장면으로 구성된 그림은 검정이나 갈색의 가늘고 선명한 선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가지만 남은 2월의 은행나무에서부터 새순이 피고, 잎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는 모습 등을 담았습니다.

대학로에 있는 나무의 종류가 100여개가 훨씬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번에 작가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사물들은 그렇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각자 자기 자리에 서서 시간에 따라 피고 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이 올바르게 놓인 자리’가 정말 있기는 할까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내가 있는 곳’이 사실은 가장 ‘바른 자리’가 아닐까요? 이렇게 작가는 변하는 나무의 모습을 보며 ‘내가 존재하는 곳’에 대한 사유로 자연스레 관람객을 인도합니다.

김진주 작가의 그림을 왼편에 두고 벽면을 따라 이동해보겠습니다. 벽면 끝에, 다음 장소와 연결된 문이 있습니다.

열려 있는 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가면 다음 작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 박유석

문 안쪽으로 들어오니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9시 방향으로 2~3m(이삼 미터) 정도 걸어가 보겠습니다.

[3~4초 쉬고]

걸음을 멈추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9시 방향을 봐주세요.

천장까지 닿아있는 높은 벽면이 설치돼 있습니다.

벽면은 가운데 부분이 전체적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으로, 이러한 벽면을 스크린삼아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영상을 상영중입니다. 편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빈백 의자가 놓여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앉아서 관람하셔도 좋습니다.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지금 서 있는 곳 위쪽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영상과 함께 제작한 사운드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영상과 사운드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지금 즐기고 계신 작품은 박유석의 미디어 작업입니다. 태양을 유달리 좋아했던 어린 시절의



박유석은 때로 한참 태양을 쳐다보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눈을 감으면, 눈을 감고 있어도 아른거리는 빛의 잔상에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빛의 변화를 소재로 한 영상을 만듭니다. 빛의 변화에 따른 색의 변화를 영상으로 표현합니다. 공감각으로 다가오는 소리와 빛을 통해 관람객이 내면의 감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천천히 감상해보실까요?

잠시 영상을 감상하겠습니다.

사운드는 준곽(JOOKWAK)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일어나서 3시 방향으로 2~3미터(이삼 미터) 이동해 출구로 나가 볼까요?

#7. 최서은

다시 전시장의 환한 조명이 우리를 맞아줍니다.

이제 만나게 될 작품은 최서은 작가의 판화 작품들입니다. 오른쪽 벽면을 따라서 작게는 30*40cm부터 크게는 80*100cm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판화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동판화, 석판화 등 판화는 도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서은 작가는 나무를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예민한 촉감을 가진 작가에게 나무는 친밀함과 포근함을 가진 따뜻한 매체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마치 친구 같은 나무에 자신이 꿈꾸는 가상의 정원을 새깁니다. 나무로 찍어낸 그림은 정원에서 뛰놀고 있는 털이 많거나 혹은 날렵한 강아지들, 보기 어렵다는 꽃을 피운 선인장이나, 활짝 핀 장미, 파란색 영롱한 꽃망울을 가진 붓꽃들이 주인공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동식물로 가득한 세계는 최서은 작가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운 곳입니다.

벽면을 따라가며 감상하다 마지막 그림에 다다른 뒤로 돌아보실까요?

점자블록을 따라서 이동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가의 작품만 남아있습니다.

#8. 유다영

지금 앞에는 유다영의 영상과 사진 작업이 놓여 있습니다.

유다영은 사진을 찍을 때의 감정이나 문장을 기록해두고, 이후 사진 이미지 위에 점자로 당시의 생각을 새깁니다. 사진은 만질 수 없는 매체에서, 만질 수 있는 매체가 됩니다. 이미지 위에 기록된 점자는 누군가에게는 언어이지만, 읽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이미지로 남습니다. 만지는 언어가 아닌 보는 언어에 익숙한 사람은 사진에 찍힌 점자를 바라보며 잠깐의 당황스러움을 경험합니다.

바로 앞에 놓인 커다란 TV 화면에는 사진, 글, 점자를 활용한 작품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사진 이미지는 점자가 새겨지며 하나의 사물이 되었습니다. 작가는 여기에서 나아가 ‘사진-점자-글’이 함께 적용된 영상으로 작품을 확장합니다. 흑백의 이미지가 떠올랐다가 사라지며 남는 문장 사이에는 시간의 차이를 넓혔다 좁히며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관람객으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듭니다. 소리가 없는, 이미지로만 전달되는 영상을 통해서 언어와 이미지, 그리고 이야기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9. 나오며

지금까지 《내가 사는 너의 세계》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입주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보았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몸을 가지고 세계를 경험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신체, 서로 다른 기억이 각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어줍니다. 각기 다른 모습의 개인은 우리 세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차별이 아닌 차이로, 각기 다른 삶의 모양, 그리고 나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긍정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예술기획전

내가 사는 너의 세계
Your World I Live In

2023.10.6.금 — 10.22.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주최·주관: 
서울문화재단 예술의전당
후원: HYOSUNG

	김진주
	학력
2001	강남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학부 학사
	개인전
2023	절영 그리고..., 장애예술창작센터(윈도우갤러리), 서울
2021	구봉산 그리고 수정산, 창 의가게, 부산
	단체전
2022	일시적 개입- 델타스페이스, 아르코미술관, 서울
2022	구족회화 회원전, 경인미술관, 서울
2021	부유의 시간- 영도 프로젝트, 영도, 부산
2020	소유의 시간- 수정산 프로젝트, 수정산, 부산
2019	소유의 시간- 구봉산 프로젝트, 구봉산, 부산
2011~2018	종로문화역사형상전-종로미술협회전, 갤러리 라메르, 서울
	라움콘(Q레이터, 송지은)
	학력
	Q레이터
2007	고려대학교 영상문화원 석사 수료
2001	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과 학부
	송지은
2004	BA Fine art & Critic study, University of London, Goldsmith College
	개인전
2022	한 손 그릇, 파아프 랩, 서울
	단체전
2021	멀리에도 있지만 가까이에도 있다, 문화비축기지, 서울
2020	SCENE#N, 이모저모 도모소, 안양
2019	how- Knowhow, 이모저모 도모소, 안양
2019	FabcoNN week,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서울

	박유석
	학력
2006	건국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전공, 중퇴
2003	조선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개인전
2023	어떤 상태, 삼육빌딩, 서울
2018	경계와 경계, 책책, 서울
2015	표류: 오고감, vurt, 서울
	단체전
2022	코오롱 FnC — 1DAF 원데이아트페스티벌, Layer 41, 서울
2022	Mind.full.ness, Villa de Parnell, 용인
2022	가장 조용한 집, DDP, 서울
2022	별이 빛나는 건 내가 없기 때문이다, Volnost, 서울
2021	말라가는 것들에대한 초상, The Untitled Void, 서울
2017	MUTEK.JP, Miraikan, 도쿄
2016	Depth & Nuance — Affective Oscillations, Gallery Unofficial Preview, 서울
2014	Four Walls, One Window - 윤민섭 개인전, the Alu, 서울 외 다수

	유다영
	학력
2017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학사
	개인전
2023	점자 이미지에서 파생된 타이포 시와 노래, 팩토리2, 서울
2021	소실의 순간 : Disappearance, 중간지점, 서울
	단체전
2023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 창작지원 사업 A트랙 선정
2023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국제교류 지원사업 선정: 베를린, 독일

	송상원
	학력
2012	나사렛대학교 토이캐릭터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개인전
2023	이무기라도 괜찮아, 수리산 상상마을 상상숲, 군포
2022	뛰는 호랑이 나는 이무기, 군포문화예술회관, 군포
2013	행부기와 함께하는 나눔과 소통, 군포어린이도서관, 군포
	단체전
2023	군포미술협회정기전 수리산의 꿈, 군포문화예술회관, 군포
2022	비채아트뮤지엄 주최 드림어빌리티 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2022	우리가 기억한다 기록한다, 군포문화예술회관, 군포
2021	지구를 걷는 감각의 고리, 군포문화예술회관, 군포
2021	Who is the OUTSIDER, 벤티미술관, 용인
2020	becoming d collector, 기억의 공장 1945, 순천
2019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행국도화서 ‘그리하라’, 화성행궁, 수원
2019	한.중.일 장애인 미술교류전 FLY TO THE WORLD,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외 다수
	수상
2023	제33회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입선
2022	비채 아트뮤지엄 드림어빌리티전 대상
2022	하나아트버스 발달장애미술공모전 우수상
2022	DPI 코리아 주최, D-EUM 미술공모전 동상

	최서은
	학력
2011	동의대학교 문예예술창작학과, 문학학사
	개인전
2023	나의 꿈꾸는 정원으로, 갤러리 활, 서울
2023	최서은 초대개인전, 갤러리라메르, 서울
2022	꿈꾸는 정원, 마루아트센터 1관, 서울
2022	기억...추억이 되다,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아트월 갤러리, 서울
2021	사계-기억속으로, 국회의사당 소통관1F, 서울
	단체전
2023	한국미술협회 회원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2023	제2회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시, 청와대 춘추관, 서울
2023	제21회 한국섬유미술가협회기획전, KCDF갤러리, 서울
2023	제2회 Lush Art Fair, 러쉬 롯데월드점, 서울
2023	한국자폐인사랑협회블루아트회원전, 부산시청 제1전시실, 부산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 벅스코 제1전시관, 부산
2023	아르브뤼코리아 회원전, 아르떼갤러리, 서울
2023	Korea Art Fair Of Light, 마루아트센터 특별관, 서울
2023	PALETTE 5인 특별전, 소다미술관, 화성
2022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비발달장애작가8인 특별전, 서울
2022	마포미술협회 회원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외 다수
	수상
2023	대한민국 미술대전 판화부문 입선
2022	대한민국 회화대상전 서양화부문 대상
2022	한•아태 발달장애인 미술공모전 장려상
2021	대한민국 미술대전 판화부문 입선
2020~2016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5년 연속 수상

전시 제목	장애예술기획전 《내가 사는 너의 세계》
주최·주관	서울문화재단, 예술의전당
후원	효성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기간	2023년 10월 6일(금)－10월 22일(일)
참여작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3기 입주작가 김진주, 라움콘, 박유석, 송상원, 유다영, 최서은

총괄	서울문화재단	창작기반실장 한지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매니저 이승주
	예술의전당	예술협력본부장 김세연, 시각예술부장 박거일
운영	서울문화재단	이화정, 우혜승
	예술의전당	정다미, 손모아
전시기획	뉴포맷	박경린, 하은서
사진	타별	
공간	디자인마룬(주)	
디자인	PIXELS PER ISSUE	
웹사이트 개발	조연정	
영상	스튜디오 원더랜드	
쉬운정보	소소한소통	

	오디오가이드		수어가이드	
감수	권성아(화면해설작가)	통역	가이드 영상: 김선미(수어통역사),	
녹음 및 편집	이한누리, 전성진		오프닝 통역: 이선희(수어통역사)	
	(예술의전당 무대음향파트)	감수	황진(농인통역사)	
성우	안효섭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예술의전당

발행인

이창기, 장형준

발행일

2023년 11월

이 책의 글과 이미지의 저작권은 저자와 작가에게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웹사이트

yourworldilivein.kr

